

КСІ

새로 발굴한 金炳淵의 科體詩 검토

柳年錫(제1저자)*, 梁東植**

<차 례>

- I. 머리말
 - II. 『時尙』의 형태와 내용
 - III. 『金笠詩集』과 『時尙』의 과체시 비교
 - IV. 『東詩』와 『時尙』의 과체시 비교
 - V. 맺는말
- * 부록 : 『時尙』에 수록된 김병연 과체시 탈초본

I. 머리말

이 논문의 목적은 금번 2006년에 새로 발굴한 김병연의 과체시 12편을 검토하는 데에 있다. 속칭 김삿갓으로 잘 알려진 金炳淵(1807~1863)의 생애에 관해서는 이용수 『金笠詩集』의 「김립약보」¹⁾에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 김병연은 당시 권문세가인 安東金氏 집안에서 태어났다. 1811년 홍경래난 때 그의 조부 金益淳은 宣川防禦使였으나 叛軍에게 투항한 죄목으로 사형을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김병연 일가는 폐족이 되어 뿔뿔이 흩어졌다. 강원도 영월에 숨어 살던 김병연은 20대 초반에 가출하여 전국을 방

* 순천대학교

** 순천대학교

1) 이용수, 『김립시집』(초판)(서울 : 학예사, 1939), 9~12쪽.

랑하며, 걸식하다가 전라남도 화순 同福에서 57세를 일기로 객사했다.

그동안 김병연의 시문학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김립시집』의 역편자인 이응수는 김삿갓에 대하여 “東洋의 詩聖, 아니 世界文豪의 地位에 있다”²⁾고 했다. 혹자는 “김삿갓은 없다. 언필칭 그의 시로 일컬어지는 시들은 김삿갓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시를 지으랴 싶은 것을 주워 모아 놓은 것이라고 보면 거의 실상에 가깝다”³⁾라고 했다. 그러나 이진호는 “金炳淵은 언제나 서민대중의 편에 서서 그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모순된 제도와 잘못된 사회체제를 해학과 풍자로써 비판하며 백성들이 지향했던 바른 뜻을 기르는데 시로써 헌신했던 큰 시인이었다”⁴⁾라고도 했다.

실상 이러한 평가들은 대체로 김삿갓의 五言·七言의 律詩의 연구에 한정된 내용이다. 통상 여덟 句로 된 율시들을 一般漢詩로 호칭하여 科體詩 즉 功令詩와 차별화하고 있다. 이제는 그동안 소홀했던 과체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응수는 “그의 科詩(과체시를 말함 : 필자 주)는 科客의 교과서가 되고 그의 律, 句는 서당 훈장 학동들의 繩尺이 되어 어느 서당에 가든지 김립의 律句 몇 수를 암송하고 있었다”⁵⁾고 했다. 이것은 이응수가 김삿갓의 한시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갖게 된 소감의 일단이다.

김삿갓 연구에 큰 공헌을 끼친 정대구도 위의 소감에 부응하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삿갓의 과체시에 대한 평가는 당시에 마치 교과서처럼, 모범 답안지같은 대우를 받았고, 후대에 김태준·조운제·이가원·문선규 등등 국문학자들도 그들의 저서에서 김삿갓의 과체시에 대하여 언급을 가하고 김삿갓의 희작시에 대해서 인식했던 사람들도 과체시만은 높게 인정해 주었다.⁶⁾

2) 이응수, 『김립시집』(증보판)(서울 : 한성도서, 1941), 34쪽.

3) 정 민, 『한시미학산책』(서울 : 솔출판사, 1996), 346쪽.

4) 이진호, 『金炳淵詩研究』,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4, 155쪽.

5) 이응수, 앞의책(증보판), 34쪽.

6) 정대구, 『김삿갓연구』(서울 : 문학아카데미, 1990), 71쪽.

정대구의 『김삿갓연구』가 발표된 지 어언 15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과체시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하다.

과체시의 형식은 七言絶句를 한 짝으로 하여 모두 36 줄[行]로 이루어져 무려 252字에 달하는 長詩文이다. 더구나 과체시는 중국의 고사를 많이 인용하여 난해하며 내용의 파악이 까다롭다. 그런데 지난해 매우 주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 구사회 교수가 김삿갓의 과체시 11편을 새로 발굴한 것이다. 또한 금년초에 필자가 김병연의 과체시 12편을 추가로 찾아냈다. 이 작품들은 申思奘이라는 분이 필사한 『時尙』에 실려 있다.

먼저 구사회가 발표한 과체시에 관한 개요를 들어보겠다.

이응수가 수행했던 일련의 작업 이후로 10수가 더해졌는데, 1983년도에 이르러 문예지 『문학사상』에서 김삿갓의 한시 13편을 발굴해 냈고, 영월에 사는 박영국이 수집한 김삿갓의 한시 중에서 3편이 새로 추가되었다.

정대구에 의하면 지금까지 전하는 김삿갓의 한시는 모두 456편(일반한시 248편, 과체시 208편)이다. 근래에 이건호는 김삿갓이 세상을 떠났던 곳으로 알려진 全南 和順郡 同福面에 살았던 정창진(丁昌鎭)의 후손가에서 새로운 한시 2편을 찾아냈다. 그런데 이번에 필자가 새로운 과체시 11수를 추가하면, 김삿갓의 한시는 모두 469편(일반한시 250편, 과체시 219편)으로 정리된다. 이번에 필자가 우연찮게 김삿갓의 한시를 발굴하면서 느낀 소감도 아직 어디엔가는 그의 한시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⁷⁾

구사회는 ‘아직 어딘가에 그의 한시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응수는 “이 詩의 수집의 지역적 범위는 南鮮, 北鮮, 西鮮을 통틀어 포함되어 있는데 (중략) 남선, 강원도 지방에 직접 가지 못한 것은 나의 유감”⁸⁾이라고 했다. 이응수가 직접 가지 못한 ‘남선’ 즉 영호남 일대는 구사회가 말한 ‘어딘가’의 범위를 더욱 좁혀준다. 필자가 김병연 과체시를 새

7) 구사회, 「새로 발굴한 김삿갓의 한시 작품에 대한 문예적 검토」, 『문학과 문학연구』의 새로운 쟁점(국제어문학회, 2005), 2~3쪽.

8) 이응수, 앞의 책(초판), 7쪽.

로 발견한 『時尙』을 얻은 곳은 광주광역시 고서점이었다.

II. 『時尙』의 형태와 내용

『時尙』의 크기는 17.5×19cm로서 方形이며, 앞뒤 표지를 합하여 모두 33장이다. 두꺼운 표지는 다섯 군데에 구멍을 뚫어 무명실을 꼬아 매었으며, 안쪽은 모두 창호지인데 두 겹으로 접혀 있다. 필사 재료는 먹[墨]이며 楷書로 내리 썼다.

표지에는 ‘丙申 八月’이라는 干支가 적혀 있다. 이것은 필사가 완성된 시기로 보이는데, 丙申年의 最近世는 1956년과 1896년에 해당한다. 만일 1956년이면 한국휴전협정 3년 후이며, 1896년은 김병연 사후 33년이 된다. 그러나 紙質의 상태나 製本한 숨씨 등으로 보아 이 필사본은 1896년에 완성되었으리라고 추정된다.

그런데 필사본 서책의 제목인 『時尙』의 뜻은 파악하지 못했다. 제목의 바로 아래쪽에는 약간 작은 글씨로 ‘單’이라고 적혀 있는데 ‘單卷’의 줄임말로 생각된다. 다시 그 아래 陽刻된 도장이 찍혀 있는데 판독하지 못했다. 또한 뒤표지 안쪽에는 ‘主 鵝洲 申思奭 識와 함께 ‘美南藏’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상으로 미루어 보아 『時尙』은 신사석이 당시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詩文을 모아 책의 제목으로 붙인 듯하다. 그러나 『시상』의 필사자 申思奭에 대한 인적사항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의 申씨 본관으로 高靈, 平山, 鵝洲 등 50여 본이 있는데, 그의 아호가 鵝洲인 점이 주목된다. 더러는 자신의 본관을 아호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는 고을을 나타내는 주州를 擘[洲]의 뜻을 가진 글자로 바꾸어 ‘鵝洲’라고 自號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시상』에는 모두 95편의 과체시가

실려있다. 맨 처음 등장하는 <歸報滄海君>의 작자는 黃五다. 황오는 1845년에 鄭顯德(1810~1883)의 소개로 김삿갓을 만난 적이 있다. 이때는 김삿갓의 나이 39세였는데 공교롭게도 새로 발굴한 <止酒詩>를 지은 해와 동일하다. 황오가 김삿갓을 만난 경위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綠此集』⁹⁾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김삿갓에 관한 기록을 남긴 황오와 김삿갓의 과체시가 『시상』에 함께 실린 것도 흥미롭다.

『시상』에 실린 과체시의 저작자는 黃五(1), 鄭(4), 朴齋璣(2), 黃麟八(7), 禹庸(1), 金華中(1), 蔡澤(1), 玄涯(1), 郭子健(1), 柳光憶(1), 柳太容(1), 李宅東(2), 許塚(1), 申光洙(1), 金炳淵(18) 등으로 모두 15명, 총 42편이다. 이 가운데 『綠此集』의 저작자 황오와 과시에 능통했던 신광수(1712~1775)를 제외한 12명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柳光憶은 이옥(1760~1812)의 한문소설 <柳光憶傳>에서 科詩를 팔아서 먹고사는 作中人物일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53편은 작자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屈原의 <楚辭>나 蘇軾의 <赤壁賦> 등과 관련된 작품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다소 보인다.(괄호 속의 숫자는 작품의 수임)

이 논문에서 쟁점 하나로 떠오르는 것은 우용의 <責漂麥>이다. 구사회가 김삿갓의 과체시라고 발표한 <訕漂麥>과 아주 흡사한데 이에 대해서는 IV장에서 자세히 검토될 것이다.

이상의 작자 가운데 단연 수위를 차지한 18편이 김삿갓의 과체시이다. 이 논문에서 이들을 김병연의 작품으로 확신하는 이유는 제목 다음에 반드시 ‘金笠’이라고 표기를 했으며 그 외의 3편은 ‘上笠’으로 略稱했기 때문이다. 이하 김병연의 과체시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 黃五, 「金莎笠傳」2권, 『綠此集』, 한성도서, 소화 7년.

<표 1> 『時尙』에 수록된 김병연의 과체시

번호	제 목	비 고
1	止酒詩	
2	獨不憐公子妹耶	이응수 『김립시집』(증보판) 405쪽
3	喜雨亭	" 305쪽
4	聶政後二百年秦有荊軻之事	" 247쪽
5	作詩乞酒	
6	代荊軻嘆滄海力士誤中副事	
7	秋七月既望	
8	少焉月出於東山之上	" 312쪽
9	項梁怒	
10	此則岳陽樓之大觀	
11	代范增將軍歸彭城別營壯士	
12	乃請荊軻曰秦兵朝暮渡易水	
13	而已夕陽	이응수 『김립시집』(초판) 211쪽
14	風蕭蕭	
15	歌風蕭蕭易水寒嘆壯士復還	
16	八千愧五百	이응수 『김립시집』(증보판) 260쪽
17	朕始爲皇帝	
18	醉自播間歸驕其妻妾	

위의 <표1>을 통하여 살펴보면 2, 3, 4, 8, 13, 16은 이응수의 『김립시집』에 이미 발표되었던 작품이다. 그러나 『김립시집』에 실린 제목은 <獨不憐公子妹>인데 『시상』에는 맨 끝에 ‘耶’가 붙어 있으며, 첫 줄의 ‘圍急吾不憐家妻’와 ‘國亂吾不憐家妻’가 약간의 차이가 나는 등 다소의 출입이 있다. 이것은 아마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轉寫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착오일 것이다. 이와 같이 비록 몇 글자 또는 몇 줄의 상이점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내용에는 대차가 없으므로 이상의 6편은 새로 발굴한 과체시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나머지 1, 5, 6, 7, 9, 10, 11, 12, 14, 15, 17, 18번 등 총 12편을 추가로 발굴된 김병연의 과체시로 인정한다.

위 12편의 과체시들 가운데 <止酒詩>와 <作詩乞酒>는 제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술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였거나, 시를 지어 술을 얻어먹는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다. 또한 <秋七月既望>은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인 ‘백중날’의 풍속에 관한 감회를 보여 준다. 기타 중국 ‘岳陽樓’의 경관과 더불어 楚나라 장수로서 秦軍에게 敗死한 ‘項陽’의 고사, 秦始皇을 죽이려다 실패한 ‘荊軻(?~227 B.C)’ 등 대체로 중국의 풍물과 역사적 사실 가운데 비극적인 사건을 다룬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止酒詩>와 <作詩乞酒>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다.

Ⅲ. 『金笠詩集』과 『時尙』의 과체시 비교

김병연이 타계한 지 76년이 지난 1939년에 이응수가 전국에 산재한 유작을 수집하여 『김립시집』 초판을 상재했다. 이 시집에는 130여 편의 일반한시와 50여 편의 과체시가 실려 있다. 그 후 1941년의 증보판에는 일반한시 200여 편, 과체시 30여 편이 증가되었다. 이응수는 8.15 이후 북으로 갔으며 그 곳에서 『풍자시인 김삿갓』¹⁰⁾을 마지막으로 출판하고 작고

10) 이응수, 『풍자시인 김삿갓』, 평양국립출판사, 1956.

했다. 이 시집에는 90편의 일반한시와 6편의 과체시가 실려 있다.

이응수가 북한으로 간 뒤부터 2006년 현재까지 박오양을 필두로 김일호, 권영한, 이명우 등 30여 종의 김삿갓 시집이 출판 되었으나 허문섭을 제외한 대부분의 편저자들은 과체시를 대폭 삭감하였다. 그 까닭은 아마도 과체시의 내용에 중국의 古事가 많이 인용되어 번역이 까다롭기도 하거니와 문장이 길어 번거롭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러한 사정에 대한 정대구의 견해를 보겠다.

유명 출판사도 더러 있지만 대체로 어중이 떠중이들이 김삿갓이라는 이름을 팔아 돈푼이나 벌겠다고 꾸며내고 찍어내고 팔아먹겠다는 인상이 짙다. 이들은 새로운 점을 보여 주지 못하고 대부분 김삿갓 연구의 선구자인 이응수가 펴낸 「김립시집」을 우려먹고 있음을 본다. (중략) 대부분의 김립시집이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응수를 원전으로 하고 있고 내용·편집면에 있어서 별다른 애쓴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최근에 와서 박용구 편이 번역에서 새로움을 보였고 정공채의 것이 성의와 애정을 가지고 새로운 해석과 색다른 편집을 한 것이 눈에 띈다.¹¹⁾

정대구 이외에도 윤은근¹²⁾, 정응수¹³⁾, 박혜숙¹⁴⁾, 문제선¹⁵⁾, 이창식¹⁶⁾, 박대현¹⁷⁾ 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병연의 작품과 생애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했다. 그러나 과체시에 대한 연구자료는 아직 입수하지 못했다. 그런 까닭에 『김립시집』과 필사본 『시상』을 비교 검토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시상』의 필사자 신사석 역시 김병연의 과체시를 18편이나 수록한

11) 정대구, 앞의책, 81~82쪽.

12) 윤은근, 「金笠研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79.

13) 정응수, 「김삿갓시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1982.

14) 박혜숙, 「金삿갓詩研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4.

15) 문제선, 「김삿갓 초분지에 대한 고찰」, 전라남도문화원, 1984.

16) 이창식, 「김삿갓시의 구비문학적 성격」, 『우리말글』21호, 우리말글학회, 2001.

17) 박대현, 「난고문학관 김병연 친필 관련 자료의 진위에 대하여」, 『고서연구』 21호, 고서연구회, 2003.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테고 자신의 기호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했다고 볼 때 이들의 공통점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새로 발견한 김병연의 과체시 가운데에는 <止酒詩> 및 <作詩乞酒>와 같이 술[酒]과 관련된 작품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중국 진국시대의 ‘荊軻’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은 II장에서 밝힌 바와 같다. 이에 필자는 김병연의 과체시 가운데 특징적 경향의 하나로 보이는 ‘김삿갓과 술’에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김병연의 작품세계와 생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의 별명이 김삿갓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그는 <咏笠>¹⁸⁾에서 삿갓을 詩化했다. 삿갓이란 대오리나 갈대로 거칠게 엮어서 비나 별을 피하기 위하여 쓰는 물건이다. 40여 년간 방랑 결식하던 그에게는 삿갓이 風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막, 그것만은 아니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喪主는 자신을 죄인으로 여겼다. 그래서 喪人이 외출할 때에는 날씨에 상관없이 방갓을 쓰곤 했다. 상인에게 방갓은 신체적인 소용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다. 김병연의 삿갓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는 祖父 때문에 폐족이 되어 출세의 꿈을 꺾이고, 숨을 곳도 찾지 못했다. 그리하여 김삿갓은 群衆 속의 隱者가 될 수밖에 없었다. 오로지 신분을 가리고 싶은 심리적 욕구 때문에 삿갓을 빈배[虛舟]삼아 그 속에 숨은 채 팔도강산을 방랑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김삿갓의 심리적 도피와 은둔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았다. 김삿갓의 영혼의 도피처, 그것은 술[酒]이었다.

김삿갓이 금강산으로 들어갈 때에도 “痛飲”¹⁹⁾했으며, “술을 너무 마셔 대어 市中の 아녀자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기도[亂飲多逢市女嘲]²⁰⁾했다”. 돈벌이가 없던 그는 몇 푼의 엽전을 아껴가며 “주막을 만나 술값이 없으면 어찌 할 것인가[野店斜陽見酒何]²¹⁾”라고 태산같이 걱정을 했다. 술값도 모자라는 판에 안주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소금을 찍어 먹으면서

18) 이응수, 앞의 책(증보판), 44쪽.

19) 위의 책, 123쪽.

20) 위의 책, 150쪽.

21) 위의 책, 53쪽.

“주옥같은 詩文을 팔아야 했던 [瓊琚亦是黃金販]²²⁾” 그의 심경이 여기저기에 잘 드러나고 있다. 급기야 김삿갓은 친구 趙雲卿과 헤어지면서 <與趙雲卿上樓>²³⁾를 짓는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은 이렇다. “나는 본래 狂藥인 술을 좋아하는 病이 있어 [酒誠狂藥常爲病]” 어쩔 수 없노라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김삿갓은 酒客만은 아니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러나 詩는 風流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詩亦風流可與酬]”라고 하며 석별의 끈을 놓지 못한다.

필자가 위의 김삿갓의 일반 한시 가운데 <여조운경상루>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번에 추가로 발굴된 김병연의 과체시에 <止酒詩>라는 작품이 있기 때문이다. 술을 끊고 싶어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이 작품은 김삿갓의 나이 39세 경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정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깨달음을 배웠으니, 더구나 내 나이 서른아홉이 되지 않았는가[生來始學大知覺 況我時年三十九]²⁴⁾”라는 구절에 의한다. 그의 나이 39세 때라면 가출한 지 15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의 방랑 결식은 그로 하여금 온갖 客苦와 辛酸에 시달리고 지치도록 하였을 것이다. 아마도 이제는 방랑도 접고, 술도 끊고 귀향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심경의 변화는 “강산은 샷갓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살폈거니와, 애초의 불평한 마음을 술에 맡겼었다[江山一笠亦達視 不平初心上於酒]²⁵⁾”에 잘 나타난다. 김삿갓은 ‘이곳저곳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고 음식 대접도 잘 받았다’고 술회한다. 이러한 부분은 그의 末年作으로 인정되는 <蘭皋平生詩>의 “부잣집 아들과 만석꾼 富者들을 두루 만나 가풍의 후박함을 진실로 골고루 맛보았도다[千金之子萬石君 厚薄家風均詩嘗]²⁶⁾”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先祖(조부 김익순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 필자 주)의 일을 생각하면 五臟이 녹는다’고도 했다.

22) 위의 책, 146쪽.

23) 위의 책, 183쪽.

24) 신사석, 『시상』, 쪽수표기 없음.

25) 위의 책, 같은 쪽.

26) 이명우, 앞의 책, 27~28쪽.

새로 발굴한 <지주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술은 좋은 藥으로 病도 치료해주니, 無何有의 세계에 누워 지낸 지 얼마던가[酒誠狂藥雖醫病 幾日沈臥無何有]²⁷⁾”일 것이다. 앞의 일반 한시에서는 ‘술은 광약이라 항시 병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과체시에서는 ‘病도 되고 藥도 된다’고 변용된다. 기실 술을 끊겠다[止酒]고 하면서도 약이 되므로 끊을 수 없다는 반어법적인 토로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김삿갓의 일반한시와 과체시에서 발견되는 作詩上의 유사성은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공통적인 모티브, 예컨대 ‘삿갓[笠]’, ‘술[酒]’ 그리고 폐족으로 전락한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家事荒’과 ‘破家’, 그의 방랑을 비유하는 ‘浮萍’과 ‘水萍’, 신분을 감추어야 했던 처지를 형상화한 ‘掩口’와 ‘守口’ 등의 요소들은 모두 <지주시>가 김삿갓 所作이라는 증거의 편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詩想과 詩語 등의 비교를 통하여 <지주시>가 39세 때 방랑의 중간 결산으로 쓰여진 것이며, <난고평생시>는 그의 말년에 인생을 정리한 과체시의 대표작이라고 할만하다. <지주시>와 <난고평생시>의 상세한 고찰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IV. 『東詩』와 『時尙』의 과체시 비교

구사회는 『東詩』에 실린 일부의 과체시가 김삿갓의 소작이라고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했다.

김삿갓의 과체시는 마지막 부분에 14수가 필사되어 있었는데, 본래는 어디에도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필자가 마지막 14수를 그의 작품으로 확신하는 것은 이들 중에는 김삿갓의 한시로 익히 알려진 <論鄭嘉山忠節歎金益淳降賊>과 <責索頭>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14수 중에서 맨 처음

27) 無何有之鄉의 줄임말로 어떤 作爲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세계를 말함. 『莊子』의 나옴.

작품인 <湖南詩> 밑에는 ‘金’이라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14수가 김 아무개의 작품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앞부분에서 새로운 작자의 작품이 시작되는 <圖窮>이나 <基友識之>와 같은 시제의 아래에는 申光洙나 金龍弼처럼 반드시 작자 이름이 기입되어 있었다. 그래서 <호남시> 밑에는 ‘金’이라 글자가 김삿갓을 지칭하는 것으로 확정할 수 있었다.²⁸⁾

위의 논문에 의하면 새로 발굴한 과체시들 가운데 ‘어디에도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김삿갓의 한시로 익히 알려진 <논정가산충절탄김익순항적>과 <책색두>가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14수 중에서 맨 처음 작품인 <호남시> 밑에는 ‘金’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정황이 김삿갓의 작품으로 추측, 확신, 그리고 확정의 수순을 밟게 했다.

필자는 그러한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추가로 발굴된 『시상』에는 ‘金笠’이라는 표기가 확실하므로 이 과체시들 만큼은 김삿갓의 작품임에 틀림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구사회가 발표한 14수와 필자에 의해 발굴된 18수가 모두 달라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구사회가 발굴한 과체시 가운데 6수는 <蘇秦>, <漢高祖> 등과 같이 인명이 곧 제목인데 반하여 필자의 경우는 인명이 곧 제목인 경우는 없으며, 모두 제목이 길어 최대 13字에 이른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중요한 비교 대상은 『동시』에서 구사회가 제시한 <訕漂麥>이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겠다.

<訕漂麥>은 본래 역사적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보이는데 뒷부분 6행이 망실되어 있다. 이 시는 조선후기 몰락 양반의 궁핍한 현실적 삶을 암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가림주구에 시달리며 자신의 박복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힘든 춘궁기를 보내는 백성들의 생활상도 곁들이고 있다. 다른 과체시와는 달리,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시는 상당한 문학적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여겨진다.²⁹⁾

28) 구사회, 앞의 논문, 4쪽.

위의 <산표맥>이 과연 김삿갓의 과체시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필자가 입수한 『시상』에 <責漂麥>이라는 과체시가 있는데 내용이 <산표맥>과 대체로 일치하며, 둘째 <책표맥>으로 기록된 제목 하단에 분명히 ‘禹庸’이라는 작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 김삿갓으로 추정하는 <訕漂麥>과 우옹의 작품으로 명기된 <責漂麥> 전문을 나란히 제시하여 비교해 보겠다.

偶人立隴駢鳥雀
猶勝書生坐無聊
隣鷄亂啄黃雲散
夕春空對青山遙
吾非薄命子疎濶
泣訕空廚投短瓢
平生不貴讀書郎
食貧三年織我腰
□忘峴田送歲月
□借村春經暮朝
南隣備織北隣縫
僅得新年數斗饒
青黃蒸出半破釜
曝近書窓身採樵
雷聲忽送白日雨
野壑山溪生急潮
空階有鳥勿啄粒
破突多鼠無食苗
禾收野畝老農喧
衣捲江籬群婦招
吾家有人麥何去
坐對晴窓空首搖
橫流小溪衆蛙戲

有偶立隴駢鳥隊
隣鷄亂啄黃雲散
吾非薄命子疎濶
惟勝書生坐無聊
夕春虛對蒼山遙
泣訕中庭投短瓢
人間不貴讀書郎
機忘硯田送歲月
南隣備織北隣縫
食貧年來織我腰
糠借村廚經暮朝
僅得新年數斗饒
青黃蒸出半破釜
空階有鳥勿啄粒
狂風忽送白日雨
曝近書窓身負薪
□突多鼠無食苗
野壑山溪生急潮
□收野圃老翁喧
吾家有人麥何去
橫流古巷亂蛙聚
衣捲江籬群婦招
坐對□窓空首搖

29) 위의 논문, 6쪽.

半雜秋泥群鳥踏
 □□□□□□
 □□□□□□
 □□□□□□
 □□□□□□
 □□□□□成白
 □□□□□□
 書中有女媒可居
 妾不君家同此宵

半雜新泥群鳥跳
 人非蠹魚豈食字
 無睥不見水滿地
 看君頭□□生白
 試看庭前糧盈□
 有耳應□雷震宵
 何日青雲浮洛橋
 書中有女可新婚
 妾不君家同此宵

<訕漂麥>(전문) 『東詩』 <責漂麥>(전문) 『時尚』

상기 두 작품의 제목에서 첫 글자인 ‘訕’이나 ‘責’은 모두 ‘나무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글자만 다를 뿐 의미는 같으므로 동일한 제목으로 간주 해도 될 것이다. 또한 <산표맥>과 <책표맥>에서 사용된 어휘 가운데 ‘採樵’와 ‘負薪’이 ‘떨나무를 짊어진다’는 의미로 쓰인 바와같이 ‘人間 / 平生’ ‘衆蛙 / 亂蛙’ 등등이 모두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두 작품은 어휘상의 근소한 차이와, 몇 구절의 순서가 뒤바뀐 점 이외에는 그 전체적인 내용도 아주 흡사하다. 그러므로 구사회가 발굴한 『동시』의 <산표맥>을 김삿갓 소작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물론 『동시』 14수 가운데 한 작품의 작가가 다르다고 해서 전체를 부정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제목아래 ‘金’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해서 김삿갓의 작품으로 확정하기 보다는 ‘禹庸’이라는 성명이 명기된 쪽에 신빙성이 더 있다고 생각한다.

V. 맺는말

신사석의 필사본 『時尚』에는 모두 95편의 과체시가 실려있다. 이 가운데

데 18편이 김삿갓 소작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6편은 이미 이응수 『김립시집』에 발표되었으므로 나머지 12편만이 추가로 발굴된 셈이다. 이렇게 본다면 김삿갓의 과체시는 이응수가 발표한 208편과 구사회가 새로 발굴한 11편 그리고 필자가 추가로 찾은 12편을 합하여 모두 231편이 된다.

이번에 발견된 과체시 18편을 김삿갓 소작으로 단정하는 이유는 작품 제목 아래 반드시 ‘金笠’ 또는 ‘上笠’이라는 표시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상』의 <지주시>는 이응수 『김립시집』의 일반 한시에서 보았던 김삿갓의 정서와 매우 흡사한 부분이 많아 저작자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 주었다. 예컨대 김병연이 폐족이 되어 삿갓을 쓰고 방랑했던 사정이나 그가 술에 탐닉했던 모습이 일반 한시와 과체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등이 그것이다. 물론 조선 말기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인 부패 속에서 폐족으로 전락되어 방랑했던 인물이 김삿갓 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방랑자가 김병연처럼 방랑 결석하면서도 시를 지어 人口에 회자되지는 않았다.

김병연은 그의 생존 당시에 한 끼의 밥과 하룻밤의 잠자리를 빌며 천대와 수모를 받았다. 더구나 그의 詩文은 제도권 안에서 세도를 장악하고 있던 道學君子들로부터 非文이라고 따돌림을 당했다. 훈민정음을 ‘개글’이니 ‘하룻글’이라고 했듯이 김삿갓의 시를 ‘물글’ 즉 비문이라고 매도했던 것이다.

정대구가 이미 피력했듯이 과체시는 과거시험을 목적으로 한 공식적인 것이어서 시인의 세계인식과는 매우 동떨어진다. 그러나 김삿갓의 과체시는 현실에 대한 비분강개한 심정이 들어 있어서 당시의 현실인식이나 사회상을 찾아낼 연구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2005년 구사회가 새로 발굴한 과체시와 필자에 의해 발굴된 것에는 동일한 작품이 없어서 상호간의 비교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시』의 <산표맥>과 『시상』의 <책표맥>이 내용은 거의 일치하나 저작자가 각각 김삿갓과 우용으로 다르게 소개된 것은 비

상한 관심을 갖게 한다. 『시상』의 <책표맥>을 포함하여 추가로 발굴된 김병연의 12편의 과체시가 이 방면의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구사회, 「새로 발굴한 김삿갓의 한시 작품에 대한 문예적 검토」, 『문학사와 문학 연구의 새로운 쟁점』, 국제어문학회, 2005.
- 문제선, 「김삿갓 초분지에 대한 고찰」, 전라남도 문화원, 1984.
- 박대현, 「난고문학관 김병연 친필 관련 자료의 진위에 대하여」, 『고서연구』 21호, 고서연구회, 2003.
- 박혜숙, 『金삿갓詩研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4.
- 신사석, 『時尙』, 丙申年.
- 윤은근, 『金笠研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79.
- 이건호, 『金柄淵詩研究』,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이용수, 『金笠詩集』(초판), 서울 : 학예사, 1939.
- 이용수, 『金笠詩集』(증보판), 서울 : 한성도서, 1941.
- 이용수, 『풍자시인 김삿갓』, 평양국립출판사, 1956.
- 이창식, 「김삿갓시의 구비문학적 성격」, 『우리말글』21호, 우리말글학회, 2001.
- 정대구, 『김삿갓 연구』, 서울 : 문학아카데미, 1990.
- 정 민, 『한시미학산책』, 서울 : 솔출판사, 1996.
- 정응수, 「김삿갓시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1982.
- 황 오, 「김사립전」 2권, 『녹차집』, 한성도서, 소화 7년.

<투고일 : 2006. 6. 30. 심사일 : 2006. 7. 15. 심사완료일 : 2006. 7. 31.>

<Abstract>

A research in the newly discovered
"Gwache-shi" of Kim, Byeong-yeon

Ryu, Yeon-seok / Yang, Dong-sik

In the newly discovered collected poetry, Shisang, 95 "Gwache-shi" are transcribed. Among them, 18 poems are known as the works of Kim, Byeong-yeon. Because 6 poems have already been published in Kimripshijip, 12 poems could be regarded as newly discovered ones. Kim, Byeong-yeon's "Gwache-shi" are 231 in all: 208 of them were discovered by Lee, Eung-soo, 11 by Gu, Sahoe, and 12 by the researcher.

It is highly reliable that the newly discovered 12 "Gwache-shi" are the works of Kim, Byeong-yeon, on account of their similar atmosphere to general Chinese poems. In comparison to other "Gwache-shi", they can be useful materials to illuminate the philosophies and social conditions of his contemporaries.

Keywords : Kim, Byeng-yeon, Shisang, Gwache-shi, Kimripshijip,
the newly discovered, Chinese poems.

■ 부록 : 『時尙』에 수록된 김병연 과체시 탈초본

(< > 작품명, □ 缺字)

1. <止酒詩>

酒誠狂藥雖醫病	幾日沈臥无何有	一生自笑酩酊客	萬事遂絕荒茫友
洋洋楚江指爲誓	獨醒灵均猶在否	江山一笠亦達視	不平初心上於酒
愴柔小劫破家餘	水萍殘年爲客後	金龍花鳥放浪蹤	八域春長酒國壽
提鄉托視古并州	一夢三旬青眼久	層雲都市劍心論	明月樓垵詩債負
東誰西某好主人	鷄黍恩情非不厚	平生狂客太憂患	一病無端出儒首
爲先腸胃鐵石銷	畢竟形骸土木朽	平明新送麴秀才	遠別長歌詩數斗
銀杯卽日任化羽	玉瓶佗時戒守口	生來始學大知覺	況我時年三十九
寒鐘古寺誤道僧	孤獨深閨守節婦	床頭笑擲酒德頌	大人先生何許叟
流光勝水慚白髮	宿債如山恒赤手		

2. <獨不憐公子妹耶>

家全國敗我何論	弟存兄亡君所恥	國亂吾不憐家妻	明日編於行伍裡
隣邦時勢魯酒薄	同己私情秦秦視	揮垵春樹射鶴枕	鶴鶴寒聲應在耳
婚姻之故約意難	趙勝夫人公子姊	人情彼此一骨肉	國勢東南兩唇齒
中於四豪義是重	兩家通婚秦不喜	邯鄲急多禍未嫁	日望漳河冠盖使
秋垣徒以外人來	晉鄙胡然中道止	春申孟嘗幾列國	鷄狗隣盟難可恃
層雲一抹大梁天	激起公心何語以	隣吾勝敗勿說既	他國存亡姑舍是
危城風雨可憐花	問是誰家貴姊氏	朱陳共結是真情	楚越相看非道理
梁園芳草父母國	自憐恒言歸欲死	休公宋河遠葦航	試看周國常棣藹

3. <喜雨亭>

畫簾秋捲西山暮	賀語東風石燕舞	韓公詩做慰滿洽	歐老軒名豐樂取
因其沛然翼然成	百里烟花亭有主	東坡健筆善記事	不獨茲州亭喜雨
清虛垵亭雪迎秋	遠景樓遙風迓古	明時愧我乏霖姿	百滴風霜潮海苦
岐陽一雨際下車	旱餘新功厥施普	方春和氣本記沃	曰陽休徵洪範禹

男欣女悅太平象	四野桑麻涵太府	吾爲太守欲志喜	一亭何心起效士
長烟勝此岳陽登	落霞閑情際閣觀	登臨此樂摠雨賜	肇錫嘉名貽郡薄
無過霽月照畫樑	未了油雲繞繡戶	風調上瑞合大有	一州豐謠登八釜
先公後私祝田周	背陰臨陽瞻室魯	分明某年某月名	上樑都扁添一柱
商羊舞處至田疇	華鳥飛時成棟宇		

4. <聶政後二百年秦有荊軻之事>

上下千載龍門史	世間奇男種槿類	齊髡楚子滑稽傳	越蠡周圭殖貨誌
歸來俠窟以劍鳴	深井寒風易水至	人間何代不有俠	聶政千秋兩截事
名殉同日姊嫫烈	伴作其時舞陽釋	吳專曹沫好種子	年數山東劍次次
層雲一抹扶日市	而後風聲寂寞易	如干氣數戰場七	所謂豪傑公子四
三長過筆暫徘徊	燕趙斜陽漸漸墜	山河挾氣竟不死	秦代何男鳴以義
張椎博浪以上起	漸筳威揚其次置	空中飛出七首客	上党歸雲一面視
蒼鷹沃府杳茫影	白鳥燕天蕭瑟翅	乾坤動氣二百年	先後男兒一般志
屠門俠月缺圓天	史局文瀾斷續地	仇家二代亦併時	王坐阿房視俠累
千金愁諾漾陽去	一劍行裝督亢秘		

5. <作詩乞酒>

古人亦解文字飲	百篇豪情止一斗	北海常有樽中滿	東郭得無播間走
沈吟病骨冷皺眉	我既投爪君報玖	平生不作乞隣態	好沃風流詩與酒
千場宿債潤筆資	八域風踪荷鍾友	花朝月夕在在興	到處清狂人不負
三宵病臥硯簾室	獨醒悲歌長鈇叩	寒窗竹葉听雨初	小閣梅花經雪後
華堂春宴去來地	一飯恩情厚則厚	終朝做出別經綸	百計猶難濡我首
青錢未慚杜陵客	白衣無緣栗里叟	明公巨家問高價	滿腹瓊瑤鳴在手
呼童且進豈曰無	對客相酬宜所有	殷勤數日戒飲說	木居先生暫斂否
君山仙客竊飲難	茂陵驪人渴久消	陽關一萬亦不遠	沃地春風生色柳
樽前伏望卽千萬	紙上施行倘八九		

6. <代荊軻嘆滄海力士誤中副車>

靈風素驥慳皇睨 下界無處傳神匕 阿房宮畔呂兒坐 故人高生又浪死

青天霹靂九地來	百斤金椎何許氏	崢嶸俠窟一種子	滄海寒波連易水
吾非神劍愧猿美	君亦羸拳輕虎視	如何一代醉醇天	壘坐人間神勇士
雄圖不幸短七協	餘感猶堪一椎倚	三時鬼雄倚雲謠	天闢行塵海門俟
宮庭五步輦路復	把袖餘謀狙伏是	燕山圖裏未子事	博浪車過万万銜
沙中消息大狼狙	天又今年貸秦妃	寒原翠花後影疑	碧落晴雷虛響起
誰知畫屏躍越人	更隔朱輪掄碎裏	人間尚旺白帝祚	臯下重添壯士恥
椎花洽逐劍月晦	殿柱寒騰怒虹紫	傷心虛著後憶汝	孤負重泉深望爾
蕭蕭風氣尚古渡	漠漠滄溟又万里	燕仇韓怨與共深	俠藪荒涼運再不

7. <秋七月既望>

際閣九月蘭亭三	故人未卜良宵遊	春花夢掃學士枕	夜桂光濃簫客舟
江山始秋月既望	下界蘇仙搔白頭	蘇翁半世月幾望	七分胸襟都是秋
盈虛世事翰院名	冷煖天時雷海陬	鑿坡烟燭月滿如	熱焰名揚无處休
紅塵世界赤壁高	先秋明湖山秋杯	春歸夏口岸花落	暑退黃岡漳霧收
薇垣金馬杳如夢	南斗青山蕭瑟浮	元豐九年月之七	極浦秋聲星火流
燈寒水府層中元	聲在廬陵悲九歐	盈虛一理指秋天	月爲游人良夜謀
應殊上絃下絃裏	且向生明生魄由	團圓三五是日也	翼夜清光分九州
前宵霧影滿玉蟾	今夕流輝斜斗牛	嫦娥似嫌太圓滿	微或銀宮仙桂稠
名區秋水得月多	勿負今宵清債酬		

8. <少焉月出於東山之上>

玉妃不負前宵約	留待桂花移時發	青蓮花下酒初熟	黃竹樓中烟乍歇
精神不遠望後夜	蘇子停盃問之曰	盈虛天地老百坡	只信良宵山上月
影滿鑿陵春夢忽	瓊雷秋水明月多	跨海清光用不竭	扁舟赤壁屬既望
暝色黃泥搔白髮	陶阜亭北暮烟深	武昌山西夕陽沒	清宵惜未趨三五
人影遲遲隔林樾	風清酒熟若無月	勝地仙遊亦磨竭	無聊洞簫立暝樹
未盡澄江滌塵骨	佳期欲滿二八夜	渺渺余懷隔蟾闕	丹崖半壁忽生白
始識東山千尺几	俄然亂雲破銀濤	倏爾平湖變瓊窟	天公爲我洗眸子
一瞬江山光恍惚	阿瞞古壁弔飛鳥	石鐘遙山驚睡鶴	

9. <項梁怒>

楚南之項名於世	父兄無不文魚武	霜寒古鞘射牛斗	燈漏陳簾有魚魯
名門父子一不肖	乃叔深憂添乃祖	初年我愛爾重瞳	書劍中間保門戶
天時方倒太阿柄	文籍應傳世將譜	螢燈一壁掛芙蓉	望汝成功時項拊
前隣忽扛九鼎來	劍何書何度外睹	翻投黃卷夜軒曼	却解青萍春買酤
生平二十一未解	墜盡吾家世業古	韓惟乞兒帶劍好	平亦償貧讀書苦
家門虛負祝贏誠	搔首燈前乃叔父	傷心楚孤牧羊山	往負新薪腰爾斧
穿蛇古壁奈手疎	闕囊寒燈礙眼瞽	庸如楚括讀馬眼	癡似柳郎窺鬼姥
風塵消息听蠶起	重望吾家輕一羽	蓬桑幾拋四海志	暗數渠年非在乳
家聲忽欲墜箕裘	時事時看若風雨	終看阿侄學兵法	兵法伊歡却非怒

10. <此則岳陽樓之大觀>

可觀亦有爭雄詩	樓上夔翁坐騷垺	金陵二水咏謫仙	際閣三湘稱子安
森羅萬象滿日來	百尺飛欄人自嘆	巴陵勝狀設岳樓	何等風烟爲大觀
長坡城域孟句傳	落日登欄王賦看	重修消息處曆春	屬余際公文以干
高樓浮在洞庭南	昔聞其名今上欄	吳頭楚尾七百里	夕陰朝暉千萬端
東南天地月夜浮	四顧環樓觀則欄	名區風景盡在此	湖外江山爲物難
簾前巫峽冷千里	天上群山高一巒	無過草色入有術	此則高樓觀者歡
登臨墨客眼界闊	粧點騷人胸海寬	登斯樓也喜洋洋	故人風流爲好官
三秋荷桂地勝抗	萬里波濤人此韓	江南三十六樓台	等闌溪山風月殘
黃崗中樓号但竹	會稽秋亭名獨蘭		

11. <代范增將軍歸彭城別楚營壯士>

但願一借烏騅背	卽日西行歸故里	朝坤漠漠暮道窮	星月蒼蒼寸心是
鍾離在右周殷後	一老巋然百夫跪	平明廣陵暮營湯	隨處兵塵同一壘
荊王骨骸七十翁	楚幕爪牙八千土	山河欲封爾公候	宇宙將有吾天子
君王不拔九疑山	沃禽催人東渡水	轅門此別亦太晚	玉斗撞時可去矣
居巢日月幾喚人	暮年孤枕猶不已	天心猶助伯王否	白首謀臣老不死
吾行未早惡草前	幾渡荊江楓葉紫	秋風家在洞庭南	落木寒天孤雁起
吳姬枕上楚王睡	獨傍殘城啓行李	回天漢幕瑞雲興	楚金雖多無奈彼

殘骸將看斃沃土 天地無窮丈夫恥 親如亞夫尙見疑 楚幕安能久留爾
腰間寶刀解相贈 歸臥田園焉用此 寒燈劍幕別後楚 落雁峯前秋雨裡

12. <乃請荊軻曰秦兵朝暮渡易水>

慶卿今若先渡渭 劍頭秦亦危朝暮 壯士十年西入裝 小戎千里東征路
長城秋雨雁蕭蕭 隱然深憂小海吐 燕家大事誓易水 欲無秦兵早晚渡
年深蘇門木鳥怨 日積函關金虎怒 青宮夙夜庶幾望 舞陽行裝今已具
如何劍事緩急意 等閒燕南歲月度 金垠朝日啓行遲 碣石斜陽送客屢
佳人之手好馬肝 無學三時顛則素 關西積吞不待人 六桑殘秦年益懼
莊焚以後我狐疑 伐趙之餘彼浪顧 英雄前席主人夜 語及甘棠風雨樹
儲宮劍危日月過 敵壘兵雷電聲起 朝如不渡暮當渡 隔水青峯生遠戍
時危郢門胥胥鞭 歲晚柯坳曹沫步 臨流客馬若不肯 日恐中逢秦亦遇
高生市上日已盡 鞠老村中水无注

13. <而已夕陽>

少焉復可迎素月 洞天寥落川雲關 菱溪風散竹裡仙 峴山春迷花下客
頽然顏髮未了懷 暮景蒼茫生咫尺 人生幾何款流光 百年歐陽已而夕
登山春服竟日忘 讀書秋燈方夜惜 須臾天地歲暮情 翰院三霜頭已白
滌亭偶得半日閑 太守風流同射變 蘭亭曲水次第觴 竹樓晴烟良久席
溪山百里我爲主 非不優遊餘日積 淋漓醉興尙未央 卽景惟何惟取適
支離午陰草難茵 荏苒春光花落陌 於焉嘉客共指點 一髮西峰殘影迫
咸池一面近醜泉 永叔光陰流水汐 俄然半山拖斜紅 條爾千溪濃靄碧
時當燕客共泣時 景納堯宮寅餞宅 焚膏更欲繼殘晷 今我文章韓愈昔
居然暮鐘促客路 智仙孤菴山四口 前山草爛下牛午 古壁林暝歸鳥亦

14. <風蕭蕭>

壯士中立燕秦界 劍心上透秋天虹 斜陽西下一千里 流水東悲十三童
江城人坐水自吟 落木無過蕭颯中 荊卿一生最蕭瑟 鳴以屠門豪俠風
田光席上暗暗來 曾句杯中点点通 烏頭函谷是雖怨 吹入前宵儲嗣宮

秦關去路此易水 天下男兒歌筑同 將軍函夢夕啼蟬 美人琴心秋送鴻
 英雄行李曲中論 江水西流難復東 關西丹丹日影照 蘇北層層雲氣籠
 如何風月又蕭然 怒氣衝天秋髮蓬 丹儲席過意更淒 漸離樽前歌不終
 人間聶政後百年 擊殿蒼鷹飛執冲 宮燈落木片片語 終古悲歌男子雄
 波多激列此極地 劍氣蕭蕭明月功 雲何薄薄日何慘 碣石寒山青不崇
 淒淒劍仙信歎口 督亢青山落日紅 西風吹入百二秦 永巷秋聲青戰桐

15. <歌風蕭蕭易水寒嘆壯士不復還>

一曲二曲聲悲壯 天地男兒皆如何 何天日貫白虹起 古汀葉下丹楓柯
 臨風我馬不平鳴 有去其歸淚滂沱 西關千里壯士行 易水秋風鳴劍歌
 專諸匣裡曉霜霽 聶政村前夕陽多 高生一曲又何意 有時寒聲霜劍摩
 東流秋水劍心寒 百感催人波似羅 風鳴俠藪寂寞雲 葉落寒汀蕭瑟波
 秦京綠樹馬首翠 我歌維何非在他 圖中匕首入霜寒 匣裡樊頭秋血呵
 寒波万里不復回 劍士悲歌如許那 知心俠子摠白衣 秋雨難筵悲淚拖
 巴岑有意杜宇啼 碣石何心霜雁至 蕭蕭征馬倘解意 起謗虛汀影婆娑
 他時故路此江山 無復男兒霜七磨 時時顧笑舞陽兒 慷慨樽前顏半酩
 屠門一載擊節嘆 大俠人問一荊軻 三秋義氣劍虹紫 萬里悲懷鬢髮皤

16. <八千愧五百>

廿八騎亦羞二客 東城不及尸鄉至 億兆雄心商紂勢 數千親已田文事
 青燈再引一太白 酌汝靈魂涇殘鱗 風塵若論衆寡勢 五百當爲八千愧
 三吳大國曰日健 一齊殘枰伏以義 山河無愧兩家雄 圖伯稱王好排置
 元切但讓沃十八 半洋垓城何地 將軍南出有餘運 主人西歸無所冀
 江祠洛墳万古恨 竹枝悲歌起三四 從徒責重敗亡際 厥數當年多少異
 稽山越甲士号倍 瀛海秦童客負備 千雄爲大不當日 向背之間輕重視
 江東父老見何面 海上君臣同生死 荆南九郡愧一都 万敵元戎无處寄
 寒宵風送半夜步 義樹霜淒同日淚 溜東圓上魯連月 楚天疎星占占墜
 千秋有光海洋白 萬事无顏穀城翠

17. <朕始爲皇帝>

殷始於湯周始文	只一王字傳千禩	鴻之肇判万年都	螭刻初成八字璽
吾之尊号我自号	德兼功過斯号美	咸陽天地朕以前	曰王稱公先祖始
基傳六世穆惠昭	位笑群邦侯伯子	嘉平初載旧天子	一榻江山亦膝跪
雄威栢醫國万乘	其業函關地千里	臣之議君子儀父	莫非英雄後世恥
崑崙功德欲揭号	太始山河誰可比	前乎堯舜帝子去	上而義農皇号是
吾能有功又有德	不可於今一字以	皇模帝典摠在朕	子葉孫枝皆自此
煌煌螭篆刻三字	名召庭前函相李	基垂一世二世葉	号得兼三過五旨
尊爲一人朕号朕	列國候王戶庭裡	邦基闊闊吞地蜀	王号承來聖姚姒

18. <醉自墦間歸驪其妻妾>

可憐人間兒女子	寒廚一生啼飢淚	丈夫自有資身策	四方無非糊口地
朱門何處酒肉矣	東郭荒山夢外翠	家人望我我望人	日出墦間多好事
殘盃不辭蹴台与	冷飯猶爲飢者易	他人叱罵只尋常	妻若知之吾可愧
千身掩護乞人迹	一過猶存跨大志	欣然顏色果然腹	緩步臨門先作意
如驚如喜婦女情	竟問郎君何所自	看吾風骨食福多	行處寧憂口腹累
南隣社友万鍾富	北里親朋上卿位	今朝珍饈某家飽	昨日金盤那處醉
華堂春宴不卜夜	暮鴉歸時吾亦至	今年寒食去年腹	尙記高盤時饌備
休云車轍不到門	念我家貧无客饋	於陵何必厭饋鵝	晏卿殊非誇策駟
班班身上白揚雨	道是名園花露漬		